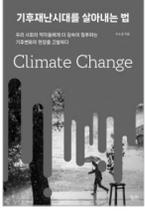


기후재난 시대에 균형발전과 공생의 길 찾는다

기후재난시대를 살아가는 법 이수경 지음



“우리나라를 급속하게 성장시킨 산업구조 개혁이 국민이 에너지 허리를 졸라맸다고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는 없다. 또 개발의 수혜에서는 벗어나 있던 경제 적 약자와 지역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후변화 피해와 기후변화 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구조개혁’은 아니다.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 해결 없는 기후변화 대책은 공염불이다.”

이수경 환경운동가가 펴낸 신간 ‘기후재난시대를 살아가는 법’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깊숙이 침투하는 기후변화의 현장을 고발한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저자의 시선은 기후변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 지역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공동체가 어떻게 나눌지에 닿아있다.

“1.5℃ 이상의 기후변화라도 사회적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농업이나 어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 공동체는 높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받는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소개하는 남극대륙 황제펭귄의 생존법은 기후 재난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제펭귄이 영하 45도에 이르는 흑한과 초속 50m의 강풍이 몰아치는 남극의 흑한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가장자리와 안쪽 자리를 바꿔가며 온기를 골고루 나누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크게 4개 파트로 나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안을 모색한다. 1장 ‘불평등이 기후변화를 재앙으로 이끈다’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2023년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화석연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기후 활동가들. /연합뉴스

한국의 기후변화 사례를 살펴본다. 한국은 과거 30년(1912-1941년)과 최근 30년(1988-2017년)을 비교하면 여름이 길어지고(98→117일), 겨울은 짧아졌다(109→91일).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는 지구 평균(0.8-1.2℃)보다 높은 1.8℃ 상승했다.

2장 ‘위기는 사회적 약자를 먹이로 자란다’에서는 코로나19와 전쟁, 재난이 사회의 약한 고리에 더 깊숙이 침투하고,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욱 심각하게 위협함을 보여준다. 또한 재난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3장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에서는 “우리 시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과제”임을 보여준다. 4장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지역이 있다’에서는 인구와 자원,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권리, 균형발전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저자는 “기후변화 피해도 지방을 무너뜨리지만 기후변화대책도 지방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해당산업뿐 아니라 노동, 지역 등 다

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공론화 과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기후변화를 감당하기 위한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개개인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던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밝힌다. 기후변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공동체 차원에서 분담하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전문학적인 비용은 탄소세와 기후세, 플랫폼세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난을 불러온 것도 재난을 재앙으로 이끄는 것도 1:99의 불평등”이라며 “1%의 세계를 끝내고 99%의 세계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1%의 세계를 끝내고 당장 99%의 세계를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99%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기후변화를 해쳐 나갈 정치를 시작할 때다.” <공리·2만원> /송기동 기자 song@

새로 나온 책

▲최소한의 과학 공부=경제와 정치, 철학과 의학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과학 상식들을 담았다. 우주와 바이러스, 오펜하이머의 핵 연구부터 기후위기 등 현대 사회에도 시의성 있는 이슈들을 히스토리 위주로 낱알이 풀어낸다. 의학 파트에서는 마취제와 백신, 페니실린 등에 얽힌 비화를 알려주고 ‘정치’ 파트에서는 권력과 결부되어 개발돼 온 원자력과 상용화, 우주 개발 등을 들여다본다. 이외에도 경제, 철학 등 4가지 키워드를 통해 과학사를 쉽게 알려준다. <웨일북·1만9800원>

▲진실과 기억=학과와 탄압으로 목숨 잃은 집단희생자들을 초점화한다. 공주 삼구쟁이와 르완다 학살 현장,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10·26 정변 등의 연결성까지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반성적으로 둘러본다.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문이 열린 민주화 시대 속에서 정치체제의 명암을 밝히거나 과거사 청산, 가해자 단죄 등을 논의한다. 이를 넘어서 공동체 통합에 이르는 방법까지도 모색한다. <산지니·2만5000원>

▲詩가 너의 눈에 번개를 넣어준 적 없다면=“절필”을 선언한 시인이 펴낸 시집. 얼핏 보면 절필한 시인이 어떻게 시집을 펴낼 수 있을지 싶지만, 앞으로 ‘시인’이 아닌 ‘시 자체’로 살아간다는 선언에 가깝다. ‘슬픔의 격조’, ‘5월’ 등 11년간 써 온 시들을 묶어 시선집 형태로 엮었다. 삶



과 시를 합치시키려 하나만 만들어가려는 예술적 시도 속에서, 인간이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관점과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푸른길·1만1000원>

▲선 넘은 여자들=물 건너 해외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해 온 열두 명 위망담들은 ‘독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달리 표현하자면 그만큼 절박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아이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은 위망담들의 현실적인 노하우를 알려준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기업부터 글로벌 IT기업, 변호사와 발레리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한 ‘엄마’들을 만날 수 있다. <생각의창·1만9000원>

나를 살리고,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책 편지

해방의 밤 은유 지음



작가와 그가 쓴 책을 견주어 보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과 꼭 닮은 작가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몇 년 전 남대대에서는 은유 작가의 강연을 접했을 때, 딱 그마음이었다. “책과 사람이 참 같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상대를 깊이 헤아리는 진득한 마음이 담긴 그의 책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길 힘을 준다.

은유 작가의 새 책 ‘해방의 밤-당신을 자유롭게 할 유의 책 편지’가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쓰기’의 세계로 이끌었던 책 ‘쓰기의 말들’의 저자인 그가 ‘읽기’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읽는 사람이 되고부터, 즉 고정된 생각과 편견이 하나씩 깨질 때마다 해방감을 느꼈기

에 더디 걸리더라도 배움을 통한 해방은 내적 평안에 기여하고 낮빛과 표정을 바꿔놓는다”고 믿으며 “책으로 삶을 해석하고, 삶으로 책을 반박해 덩어리진 생각에 질서와 문장을 부여하며” 써내려간 글들이다.

1부 관계와 사랑, 2부 상처와 죽음, 3부 편견과 불평등, 4부 배움과 아이들로 나눠 묶은 ‘해방의 밤’에 실린 책들은 “나를 살린 책들이라면 남들도 살릴 수 있으리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그가 “우리 생의 율곡에 두고 간 ‘독서의 보물 지도’다.” 그는 삶의 질문들에 대한 힌트는 늘 시간과 책에서 왔다고 말한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책기둥에서 비롯되었음을 아는” 저자는 “때론 헛수고와 헛걸음으로 우연 앞에 나를 풀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존재의 해방구인 ‘밤’은 “웅크린 존재의 등이 퍼지는 만개의 시간이자, 존재를 회복하는 시간, 다른 내가 되는 변모의 시간”이기에 그가 소개하는 50여권의 책을 들고 함께 사유의 여행을 떠나도 좋다.

삼십오 년간 폐지 압축공으로 일해온 한 남자의 이야

기를 담은 보후일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목’은 “삼십오 년째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리브스토리”라고 말하는 첫 문장에 압도당해 이야기를 풀어내간다.

“말하고 싶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만난 리베카 솔닛의 ‘세상에 없는 나의 기록’은 “전진하는 것은 후퇴할 수 있고, 닫힌 것이 다시 열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준 책이고, 김수우·김민정의 ‘나를 지켜준 편지’는 “만나는 순간 충분히 진실했기에 미련이 남지 않는 사이, 느슨한 대로 단단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영화 ‘작은 아씨들’과 청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외친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선생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엄중한 과제 앞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에르노의 ‘한 여자’로 이어진다.

‘책에 관한 책’이 갖는 미덕 중의 하나가 책장에 꽂아둔 책을 들춰보게 만들거나,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낯선 책을 만나는 것이라면 ‘해방의 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창비·1만 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어린이·청소년 책



▲햇볕에 말리면 가버린다=청소년의 태도를 쉽게 재단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시. 교조적인 어조로 시를 풀어내지 않고, 예민한 감수성에 시선을 맞춰간다. 청소년들은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장하는 과정이 잘 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창비·1만 원>

▲해가 왔다=작은 집에 살던 아이는 해가 보고 싶어 할머니에게 기도한다. 해는 아이를 보기 위해 지구로 향하고, 우주를 건너 작은 집에 도착한다. 1억 5000만 킬로미터를 건너 친구 집에 놀러 오듯 다가온

태양, 아이는 해가 덥지 않게 열음을 주며 마음을 나눈다. 해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지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주고 다시 우주로 돌아간다. <사계절·1만4000원>

▲우주에는 환상적인 사실과 숫자들이 날뛰고 있어=우주와 지구, 인간과 동물, 과학과 수학 등 여섯 분야를 나눠 삽화와 함께 과학 지식을 알려준다. 로봇 조수 클라우스가 지구의 구조부터 나무의 수, 공룡들의 존재와 국제 우주 정거장 등 흥미로운 정보들을 둘러본다. 몽게구름의 무게가 50만 킬로그램이라거나 아마존강에 다리가 없다는 사실 등 흥미로운 정보를 이야기한다. <이케이북·1만3000원>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방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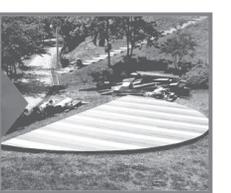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